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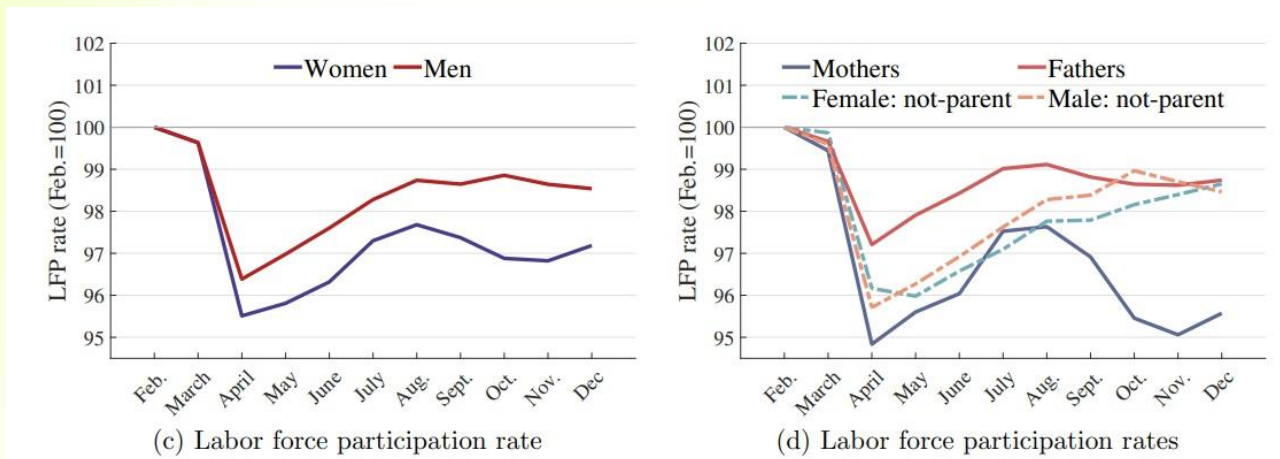
# 여성 연구자의 경력단절·지체 경험을 통해 본 노동환경과 돌봄권

김 향 수

(사회건강연구소 연구위원)

# 코로나19 이후 여성 연구자들이 사라지고 있다?

## 코로나 She-cession



✓여성she+ 경기침체recession : 코로나19 팬데믹 영향으로 경기 침체, 남성보다 여성이 고용충격을 더 받는 현상

✓원인

•코로나시기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은 일자리는 돌봄(care)과 환대(hospitality) 노동(관광, 교육, 돌봄, 숙박, 여가, 요식업 등)

•재택근무, 학교 폐쇄, 재택 수업 등 가족구성원 돌봄 노동과 시간 증가

# 코로나19 이후 여성 연구자들이 사라지고 있다?

## 학문 생산성 scholarly productivity의 젠더 영향 연구들

[HTML] Longitudinal analyses of **gender** differences in first **authorship** publications related to **COVID-19**

C Lerchenmüller, L Schmollenbach, AB Jena... - BMJ open, 2021 - bmjopen.bmj.com

... **gender** ... **COVID-19**-related research output appears particularly concerning as many disciplines informing the response to the pandemic had near equal **gender** shares of first **authorship** ...  
 ☆ 저장 70 인출 35회 인출 관련 학술자료 전체 17개의 버전 88

**Gender** differences in publication **authorship** during **COVID-19**: a bibliometric analysis of high-impact cardiology journals

EM DeFilippis, L Sinnenberg, N Mahmud... - Journal of the ... 2021 - Am Heart Assoc

... of manuscripts related to **COVID-19** did not maintain the expected pace. ... **gender** differences in **authorship** of manuscripts in select high-impact cardiology journals during the **COVID-19** ...  
 ☆ 저장 70 인출 24회 인출 관련 학술자료 전체 13개의 버전

Where are the women? **Gender** inequalities in **COVID-19** research **authorship**

AC Pinho-Gomes, S Peters, K Thompson... - BMJ Global ... 2020 - gh.bmj.com

... whether **gender** differences existed in **authorship** of **COVID-19** ... PubMed, using the MeSH term for '**COVID-19**' in Medline, on 1 ... separately for first and last **authorship** positions. Joint first or ...  
 ☆ 저장 70 인출 185회 인출 관련 학술자료 전체 12개의 버전

**Gender** differences in first and corresponding **authorship** in public health research submissions during the **COVID-19** pandemic

ML Bell, KC Fong -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2021 - ajph.aphapublications.org

... submission rates by **gender** with higher increases in productivity for men than women. Our findings likely reflect **gender** work-life imbalances that predate the **COVID-19** pandemic and ...  
 ☆ 저장 70 인출 41회 인출 관련 학술자료 전체 10개의 버전

[HTML] **Gender** disparity in the **authorship** of biomedical research publications during the **COVID-19** pandemic: retrospective observational study

G Murio, K Lerman, E Ferrara - Journal of medical Internet research, 2021 - jmir.org

... is to test the hypothesis that the **COVID-19** pandemic has had a ... biomedical field in terms of **authorship** of scientific publications. ... how the **COVID-19** crisis exacerbates the **gender** gap in ...  
 ☆ 저장 70 인출 45회 인출 관련 학술자료 전체 17개의 버전 88

[HTML] Impact of **COVID-19** on longitudinal ophthalmology **authorship** **gender** trends

AX Nguyen, XV Trinh, J Kurian, AY Wu - Graefes Archive for Clinical and ... 2021 - Springer

... The **COVID-19** pandemic increased the **gender** gap in ... **COVID-19**'s impact on ophthalmology **gender** **authorship** distribution and compares the **gender** **authorship** proportion of **COVID-19** ...  
 ☆ 저장 70 인출 9회 인출 관련 학술자료 전체 17개의 버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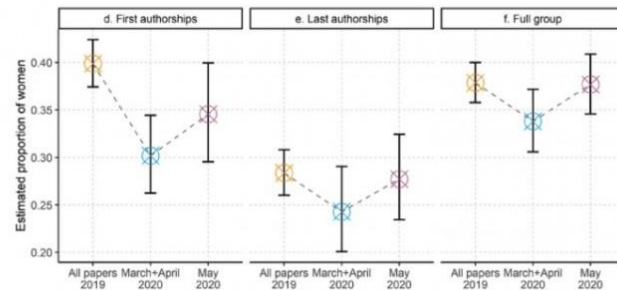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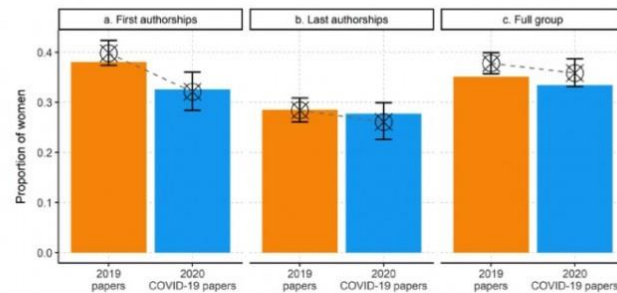
[HTML] **Gender** trends in **authorship** of Pediatric Radiology publications and impact of the **COVID-19** pandemic

RS Ayyala, AT Troul - Pediatric Radiology, 2022 - Springer

동아사이언스

코로나19 이후 과학에서 여성이 사라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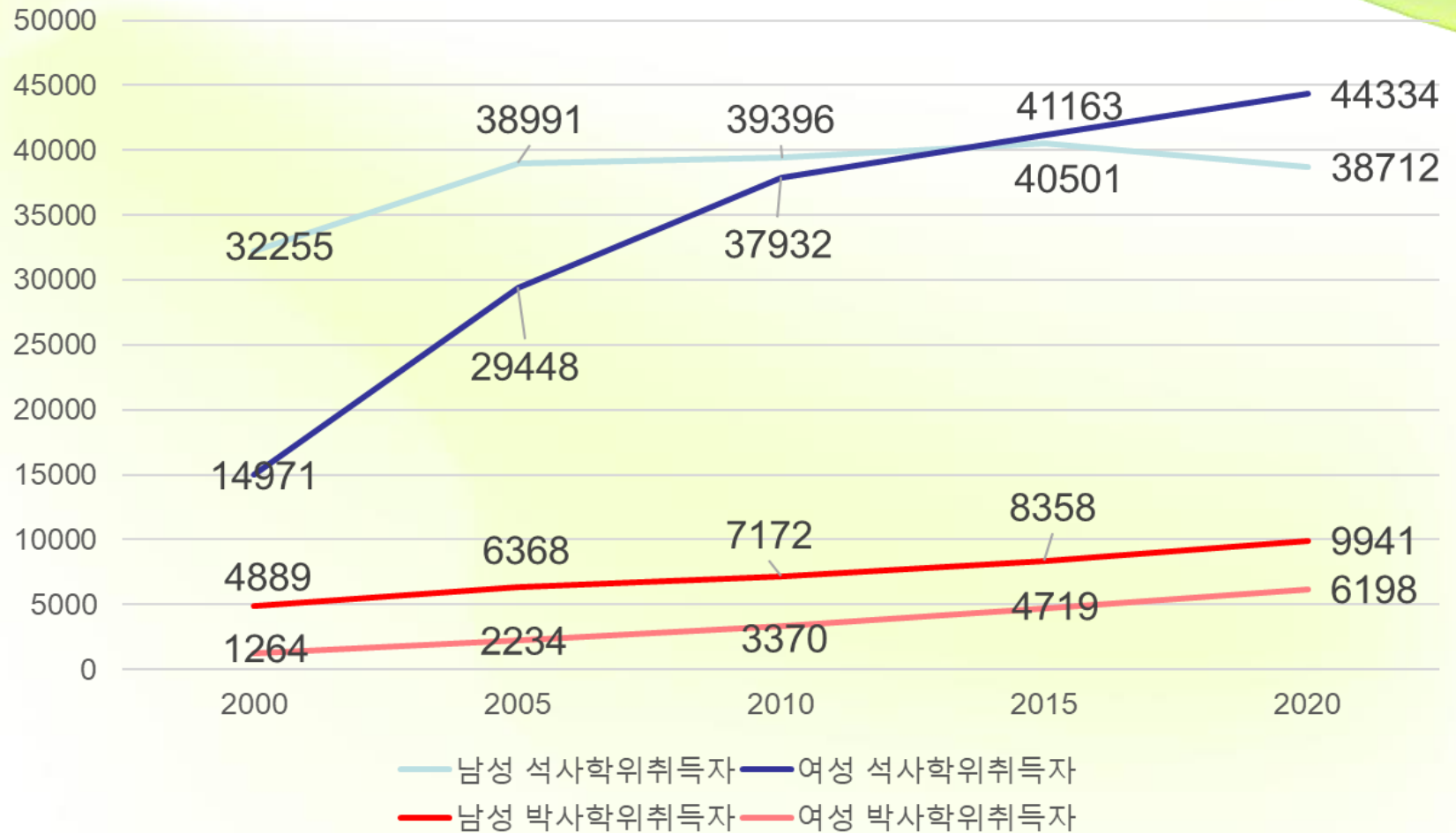
연구팀은 "의학 연구 분야에서 여성의 참여는 팬데믹 이후 큰 도전에 직면한 것으로 보인다"며 "위기의 순간에 평등과 다양성에 대한 요구는 더욱 분명해진다"고 말했다.



6월 학술지 '이라이프'에 공개된 코로나19 관련 연구 논문 제1저자 및 교신저자 중 여성 비율(a)과 교신저자 중 여성 비율 (b), 제1 및 교신저자 중 여성 비율(c) 비교 그래프다. 2019년에 비해 2020년 감소했고, 특히 제1저자의 비율이 낮아졌다. 아

# 통계로 본 현실

## 남녀 석, 박사 학위 취득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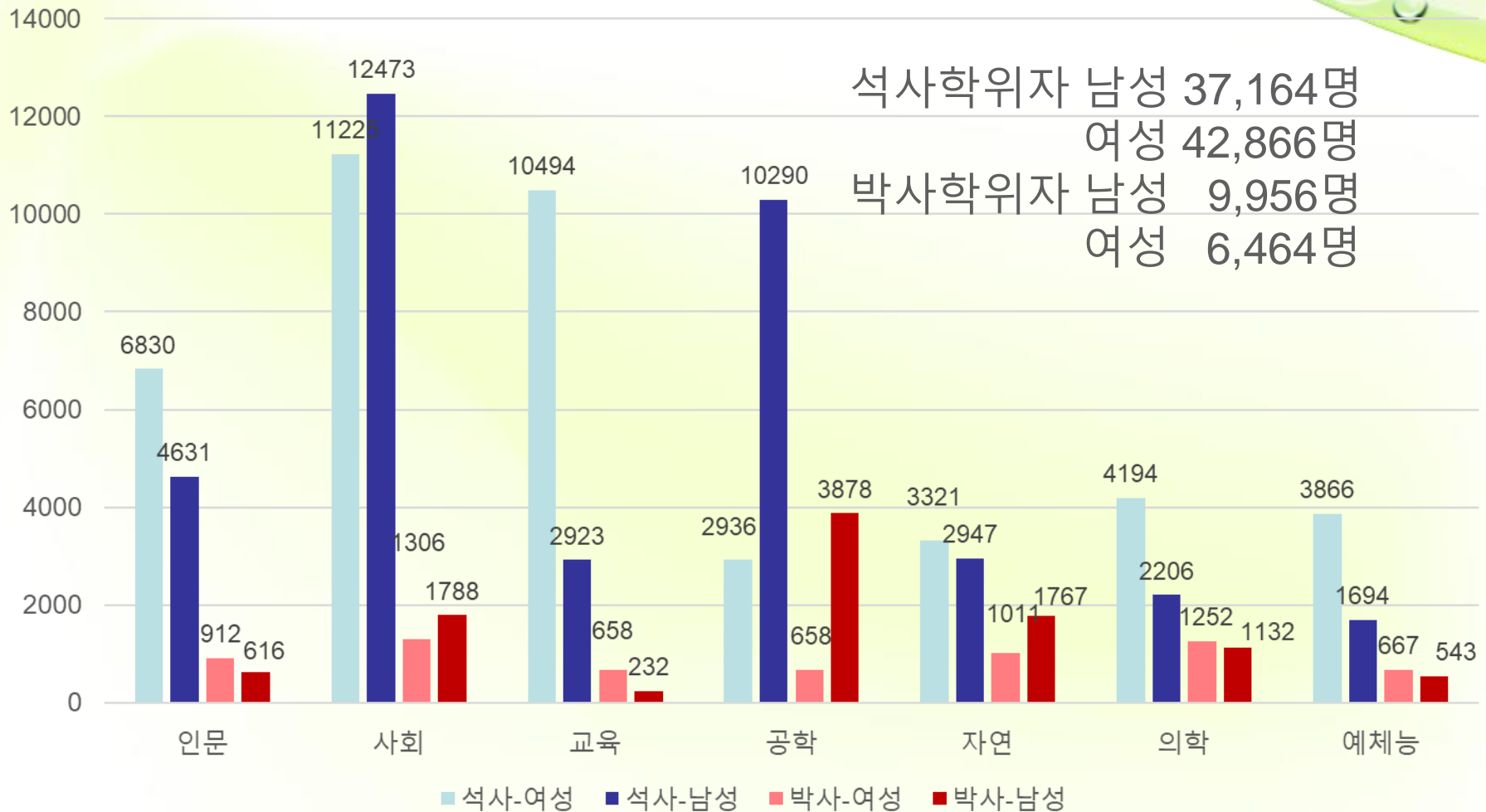


원자료: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출처: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석박사 졸업자수(전공분야별) [https://gsis.kwdi.re.kr/statHtml/statHtml.do?orgId=338&tblId=DT\\_1DA1809N](https://gsis.kwdi.re.kr/statHtml/statHtml.do?orgId=338&tblId=DT_1DA1809N)

# 통계로 본 현실

## 2021년 석,박사 학위취득자 전공별 성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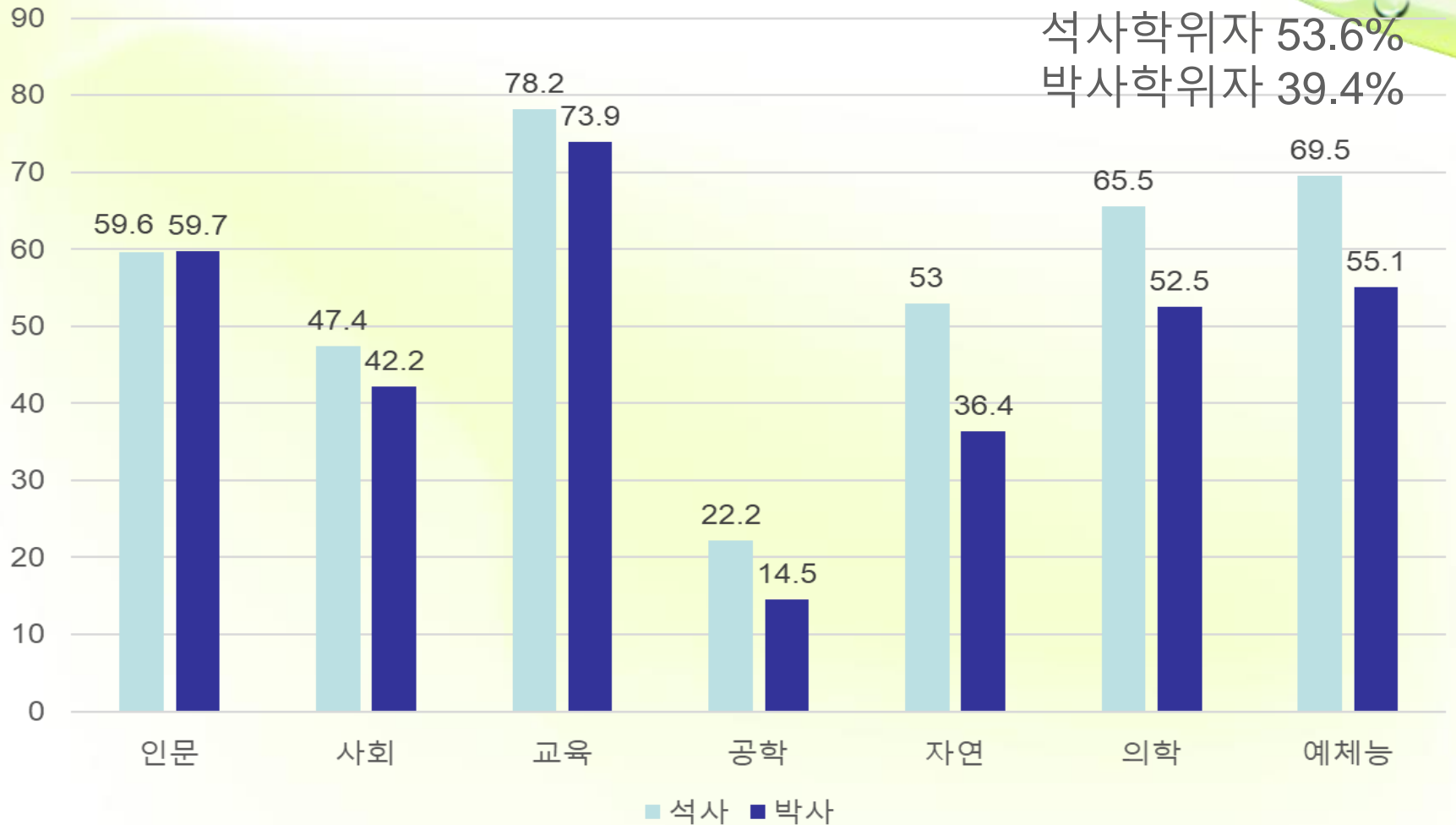


원자료: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 통계로 본 현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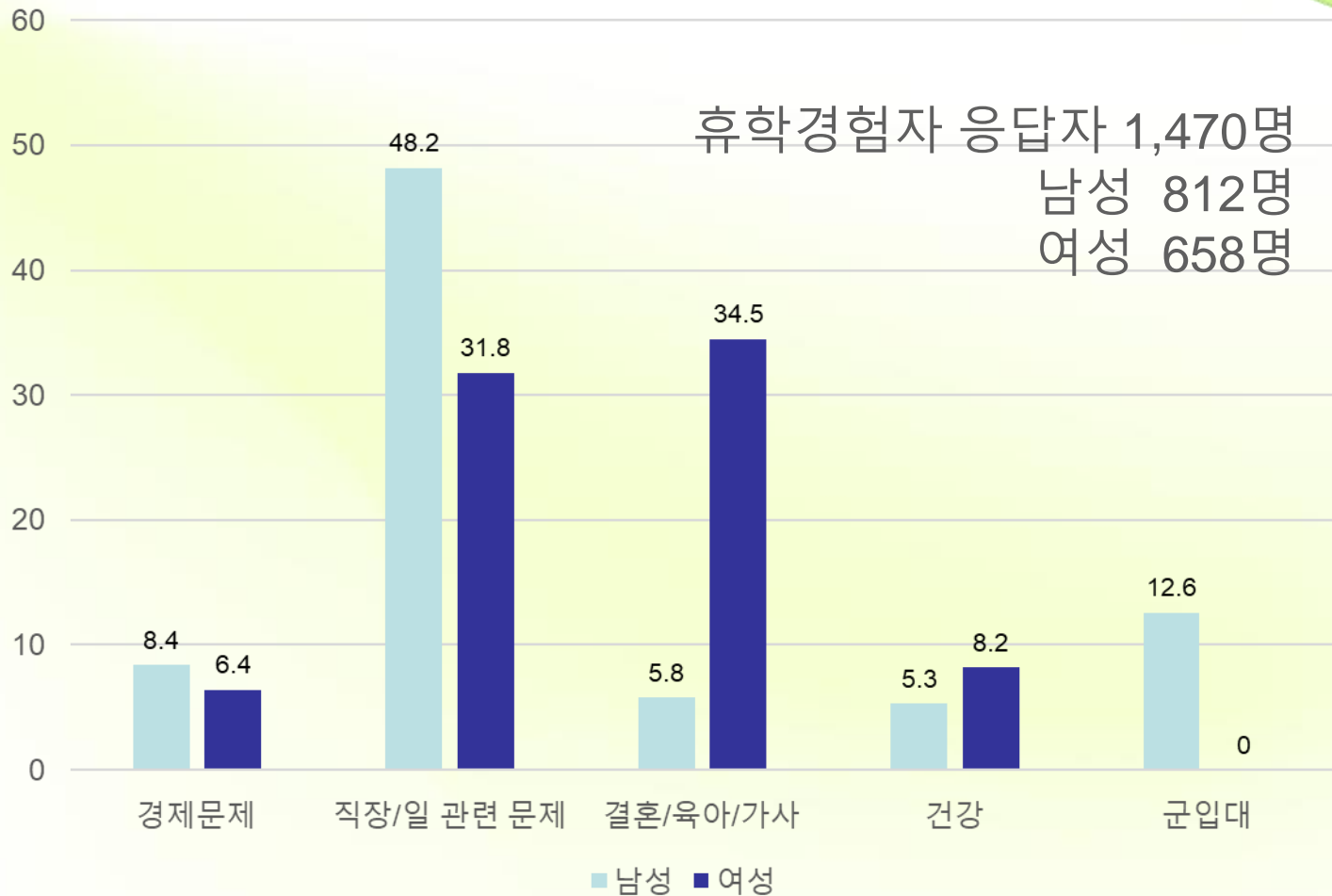
## 2021년 석,박사 학위취득자 전공별 여성 비율

석사학위자 53.6%  
박사학위자 3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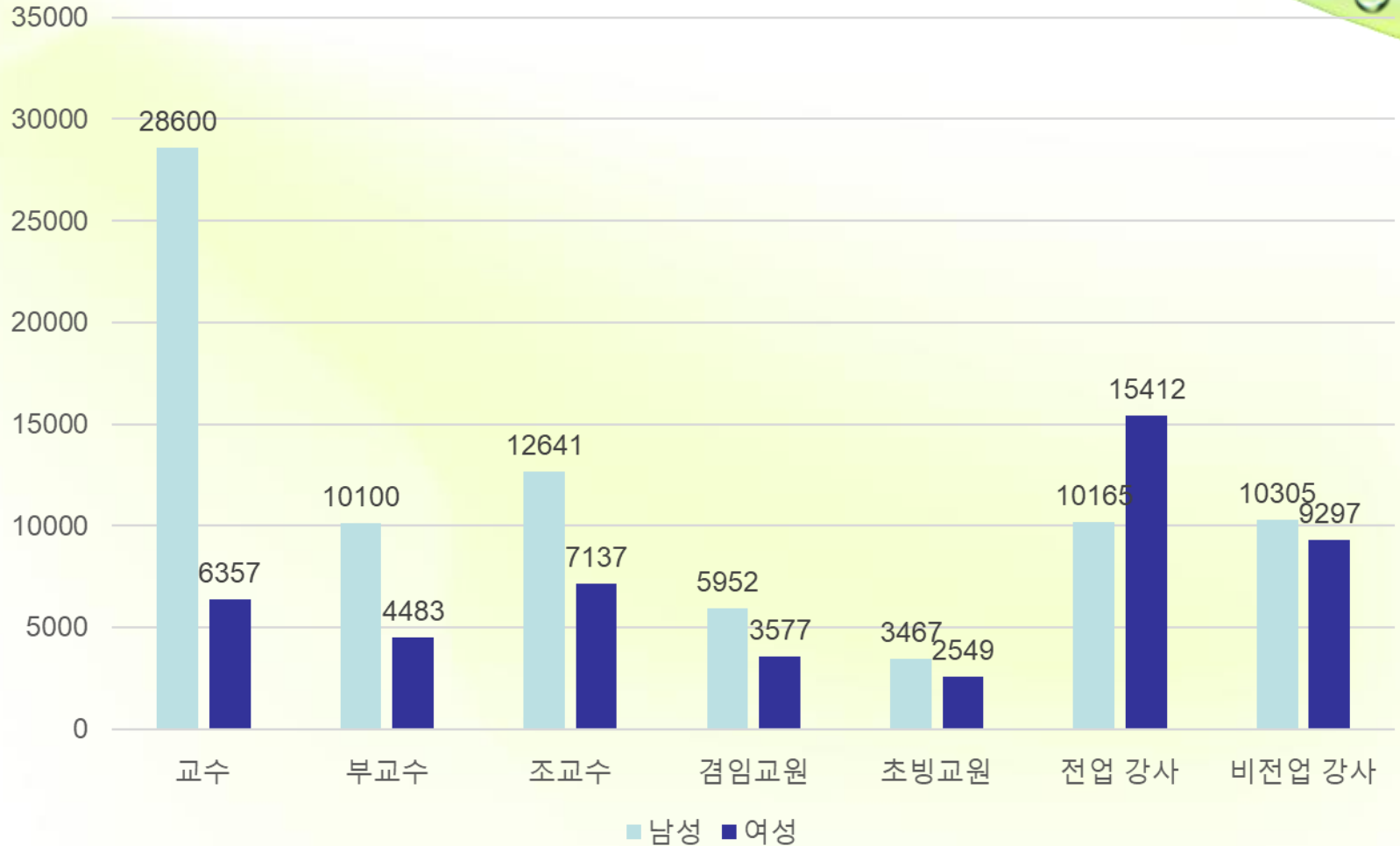
# 통계로 본 현실

## 2021년 국내 신규박사학위취득자 휴학사유



# 통계로 본 현실

## 2021년 전국 242개 대학 교원수 (2022.9.30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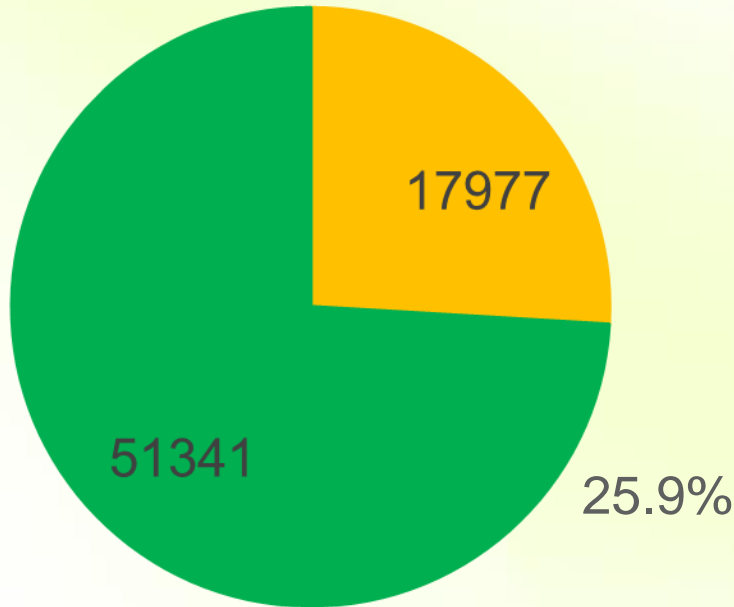




# 통계로 본 현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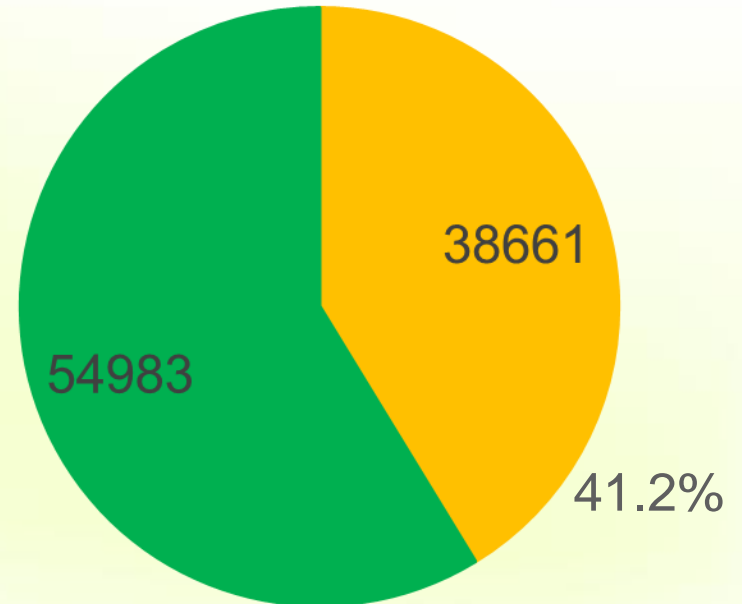
## 2021년 전국 242개 대학 교원 성비

전임교원



■ 여성 ■ 남성

비전임교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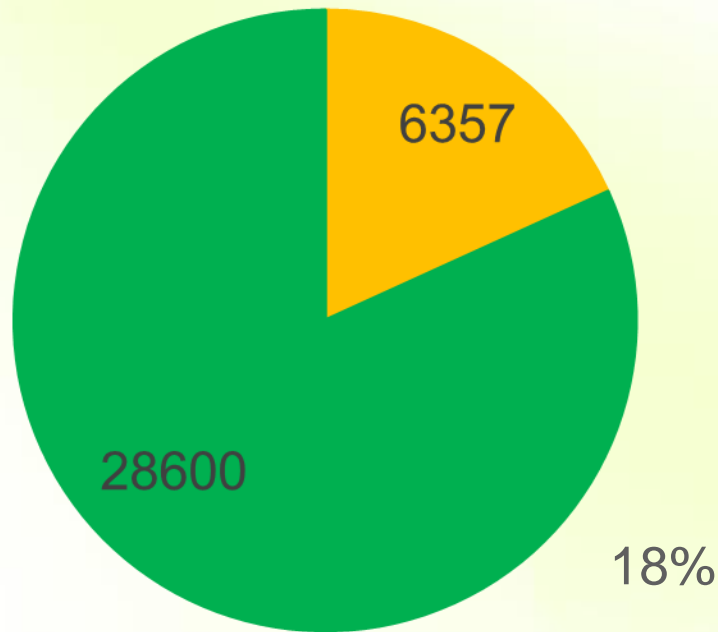


■ 여성 ■ 남성

# 통계로 본 현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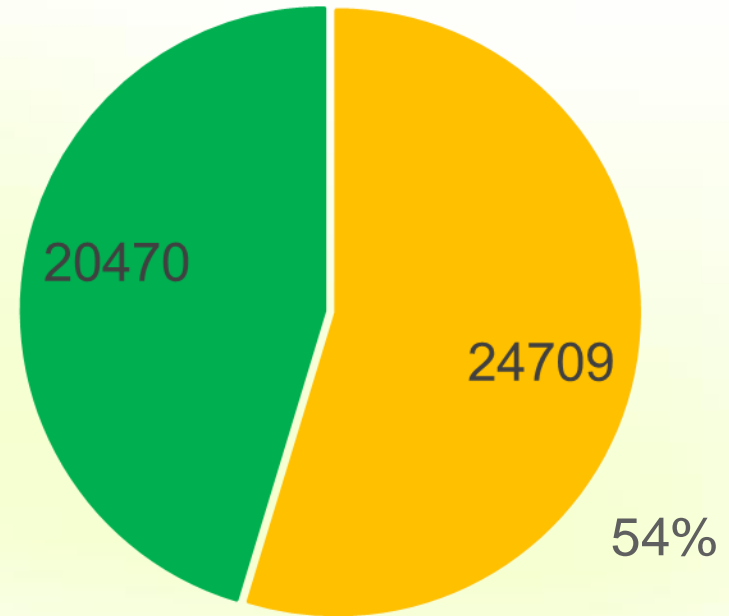
## 2021년 전국 242개 대학 교원 성비

정교수



■ 여성 ■ 남성

시간강사



■ 여성 ■ 남성

# 질문?

한국의 여성 대학원생, 박사학위자, 교원 비율이 시사하는 바는?  
여성들은 왜 어떻게 연구자로서 경력을 포기/이탈하나?

여성은 고등교육에 적합하지 않아서?  
차별적 사회화 결과로 여성들이 대학 내 커리어를 꺼려서?  
유리 천장Glass Ceiling?

새는 송수관Leaky Pipeline

**"경력의 모든 단계에서 파이프라인이 샌다"**(MIT Special Edition Newsletter, 1999, 8)

- 고등교육 그리고 학계 여성 대학원생, 연구자들의 경험에 주목해야!
- 연구자로서 배우며 훈련하고 일하고 있는지,  
그리고 연구자로 어떤 전망을 가지고 일하려 하는지?

# 여성은 어떻게 학문공동체에서 배제되는가?

“

제보 번호: 56

대학원 진학을 위해 학부생 신분으로 연구실에서 개별연구를 할 때, 회식 자리에서 남자선배와 교수님이 "여학생은 기본적으로 남학생보다 과학을 못 한다. 여학생은 디테일한 것을 보지 못해서 깊이 파고들어 질문하면 대답을 못 하기 일쑤다."라고 함.

제보자의 성별(젠더): 성희롱/성차별을 한 사람

“

제보 번호: 112

공과대학 OT에서 돌아가며 학부 소개를 할 때의 일입니다. 모 학부의 소개를 맡은 해당 학부 소속 교수님이 열 명 내외의 교수진을 한 분 한 분 소개하셨는데, 그 중 두 분이 여자 교수님이었습니다. 남자 교수님을 소개할 때는 연구 분야와 개설 수업, 최근의 실적을 이야기하시던 교수님은 여자 교수님 두 분 모두를 "XX대 공대의 꽃"이라는 말로 소개하셨고, 그 교수님 두 분의 연구 실적이나 담당 수업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을 듣지 못했습니다.

제보자의 성별(젠더): 여성  
성희롱/성차별을 한 사람의 수와 젠더: 한 명/남성

## 여성 연구자 향한 사회적 편견

- 대학의 남성중심적 조직문화 속 문화적 소수자 cultural minority
- 연구자이기보다 “여성”으로 평가
- 학자로서 능력을 의심받는 상황
- 대학원을 “선택”한 여성

*그럼에도 공부하는 여성들!*

이공계 내 성차별 아카이빙 프로젝트 <https://www.facebook.com/STEMGenderEquality/>

# 여성은 어떻게 학문공동체에서 배제되는가?

## 연구자로 선택을 요구 받는 여성들

- 일과 가족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사회적 압력
- 사회 문제가 아닌 개인 선택 문제로

[여성연구자 경력단절, 대학은]中 여성 밀어내고 차별하는 연구실, 보이지 않는 미래

고용노동부가 지난 7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의 통계를 분석한 결과, 기혼자 평균 맞벌이 비율은 58.5%로 조사됐다. 가사노동시간은 2014년 기준으로 기혼 여성이 4시간 19분으로 남성(50분)의 5배를 넘는다. 회원국 중 가장 적다.

“아이를 낳고 싶지 않다”고 밝힌 한 과학기술원의 박사과정 대학원생 A씨(여성)는 “과학기술계는 남성이나 여성이나 박사를 마치고 박사후연구원(아래 포닥)으로 3년을 넘게 전 세계를 떠돈다. 한국 학문 토양에서 결혼은 물론 출산도 애초에 결심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결혼, 출산과 학자로서의 ‘커리어’가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이다.

김정현, 2017.11.19. “여성 밀어내고 차별하는 연구실, 보이지 않는 미래“ 한국대학신문  
<http://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181564>  
이공계 내 성차별 아카이빙 프로젝트 <https://www.facebook.com/STEMGenderEquality43>

제보 번호: 45

“

교수님께서서는 수시로 여학생들은 사회에서 인력으로 뽑아놓으면 결혼하고 애 생기면, 남편 전출하면 일을 그만둔다고,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에서 여학생 졸업생들 뽑기 싫어해서 추천하기 꺼려진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점심회식, 저녁회식 가릴것 없이 그런 이야기 듣는일이 잦았어요.

”

제보자의 성별(젠더): 여성  
성희롱/성차별을 한 사람의 수와 젠더: 남성

# 여성은 왜 학문공동체에서 떠나는가?

## 비공식적 Mommy Penalty

- 제도로 보장된 출산 육아기 휴가에도, 연구실 복귀 압박
- 단기 프로젝트, 연구실적 등 성과 압박으로 동료 연구자-교수와 갈등

휴학을 내더라도 다시 "네가 지금 임신할 때냐"며 연구 공간으로 불러내는 교수들이 있다. 자연과학·공학 계열에서 이런 일은 비일비재하다.

휴학한 지 한두 달도 안 돼 연구실로 돌아오라는 전화가 온다. 아기를 낳은 지 50일 된 한 학생은 교수로부터 "연구실로 출근하지 않으면 네 책상을 빼겠다"는 강요를 받았다는 후문이다. "언제까지 애만 볼 거냐"며 면박을 줬다는 게다.

2014년 딸을 낳고 3년 만에 연구실로 복귀해 논문 집필에 몰두하는 은수씨는 자신이 겪은 배려에 얽힌 일화를 소개했다. 지도교수는 그더러 "순리대로 하라"고 말했다. 보건대학원 박사 수료만 한 은수씨였다.

"(복귀하라는) 독촉 전화를 하지 않더군요. 오랜만에 연구실로 돌아가니 '웰컴(welcome, 어서 오세요)'이라 말하는 거예요. 이 정도로 쿨(cool)한 교수님이 거의 없습니다."

# 여성은 왜 학문공동체에서 떠나는가?

## 비공식적 Mommy Penalty

- 학과 내 롤모델 및 멘토 부족
- 수용할 수 없는 양육방식과 생활방식을 권하는 교수와 동료로 인한 소외감과 고립감
- 역할 과부하로 인한 정서적 체력적 소진

아이가 자라면서 주변 사람들은 양육에 '책임'의 의미를 강렬하게 덧씌운다. "자식을 키우면서 대학원 공부하려면 네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논리가 횡행한다. 정작 맡길 데는 흔치 않다. 유치원, 국·공립 어린이집의 입소 경쟁이 치열하다. 차선책으로 택하는 게 소위 '학원 뽕뽕'이다. 대여섯 살 어린이들이 피아노 학원, 태권도장, 회화 학원을 전전한다. 진화씨의 설명이다.

"교수가 '어디에 애를 맡길 거냐'고 물어봐요. 자녀가 대여섯 살쯤 나이를 먹었다면 교수님이 대놓고 이래요. '야, 학원 뽕뽕이 돌려. 네가 지금 그럴 때야?' 심지어 여자 교수님들도 그래요. '나도 대학원 다니던 시절 그렇게 키웠다'고. 그러니 학원 장사가 잘 될 수밖에 없죠."

# 여성은 왜 학문공동체에서 떠나는가?

## 비공식적 Mommy Penalty

- 경제적 어려움과 시간 부족
- 전업주부도 워킹맘도 아닌 프로젝트 단위 비정규직 노동자라는 정체성
- 학업 관련 비용, 양육비용 등으로 인한 갈등

한때 진화씨는 연구 인건비나 장학금 등으로 학교에서 매달 240만 원 가까이 받았다. '텐투투(10 to 2)'의 연속이었다. 아침 10시까지 등교해 새벽 2~3시쯤 집으로 돌아오는 일상이었다. 학술 프로젝트 발표가 있기 3일 전부터는 100시간 넘게 학교에서 살다시피 했다. 저녁도, 주말도 없는 삶이었다.

학비를 매 학기마다 500만 원 이상 짊어지는 대학원생이지만 실상은 연구비로 생계를 잇는 직장인과 다름없다. 하지만 이들은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한 채 경계인으로 떠돌고 있다. 유급 출산휴가, 육아휴가는 꿈도 못 꾸다. 부부 모두 부모 학생이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분류된다. 가뜩이나 군색한 살림에 쪼들리는데 높은 수준의 보험료를 내는 이중고를 맞닥뜨린다.



# 여성은 왜 학문공동체에서 떠나는가?

## 비공식적 Mommy Penalty

- 아이를 돌보는 것과 연구자로 일하는 것 사이 갈등
- 개인의 경제적, 관계적 자원을 동원해서 홀로 해결해야!

저는 이제 가족 자원이 없었고 제가 친인척이나 친정 부모님이 일단 서울 이외 지역에 거주하고 있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우자도 없었기 때문에... 저랑 아들이랑 이제 둘만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1학기에는 긴급 보육을 안 보내고 가정보육을 거의 통째로 하면서 많이 내려놨었던 것 같고... (연구참여자 C)

힘들었어요.. (장애를 가진 큰 아이가) 센터에 만나절만이라도 지내다 오면 좋은데.. (중략) 교수님이 제안하신 프로젝트를 못하겠습니다... 고사하고 돌아나오는데 너무 눈물이 나더라구요. 너무 해보고 싶었던 연구였는데. (연구참여자 E)

# 연구자로 살아가/남기 위한 여성들의 행동

“착한” 개인 도움으로? 우산이 되어준 지도교수 관련 기사들

## 2010년대 부모 대학원생의 움직임들

- ✓ 맘인스누(Mom in SNU)의 가족친화 대학 요구들(2012년 발족)
  - 맞벌이 인정받지 못해 어린이집 입소 어려움
  - 대학 내 모유수유시설 증설 요구
  - 임신 출산 육아휴학(1년 여성->성별관계없이 최대 3년) 등 요구
- ✓ 대학의 부모학생 사례연구에 기반한 여성전문인력의 사회적 경쟁력 제고 정책연구(서울대 사회복지연구소, 2015)
- ✓ 여러 요구들 중 몇가지는 제도적으로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열악한 노동 환경, 학문 훈련과 학문적 생산성 요구로 인한 어려움

## 학계 환경 Academic environment 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가?

### 학문수행/노동 조건의 문제

- 독특한 일터 "대학" ; 실적과 성과를 강조하는 대학의 기업화  
교육, 훈련, 연구가 결합된 노동 특성
- 학술연구 지원체계의 문제

### 이상적 학자/연구자 상에 부합하는가? : 성과주의 압박

- 누군가를 돌볼 필요가 없고 장시간 헌신적으로 연구에 전념하는,  
그 결과 학문적 생산성이 높은 연구자
- 누가 부합할 수 있는가? - Able-bodiedness  
시간적, 체력적, 관계적, 경제적 자원이 많은 사람
- 누가 부합할 수 없는가? - 가족 돌봄, 질병, 장애 등으로  
일의 속도와 업무량을 조정해야 하는 사람들

### 학계 / 학문 내 다양성 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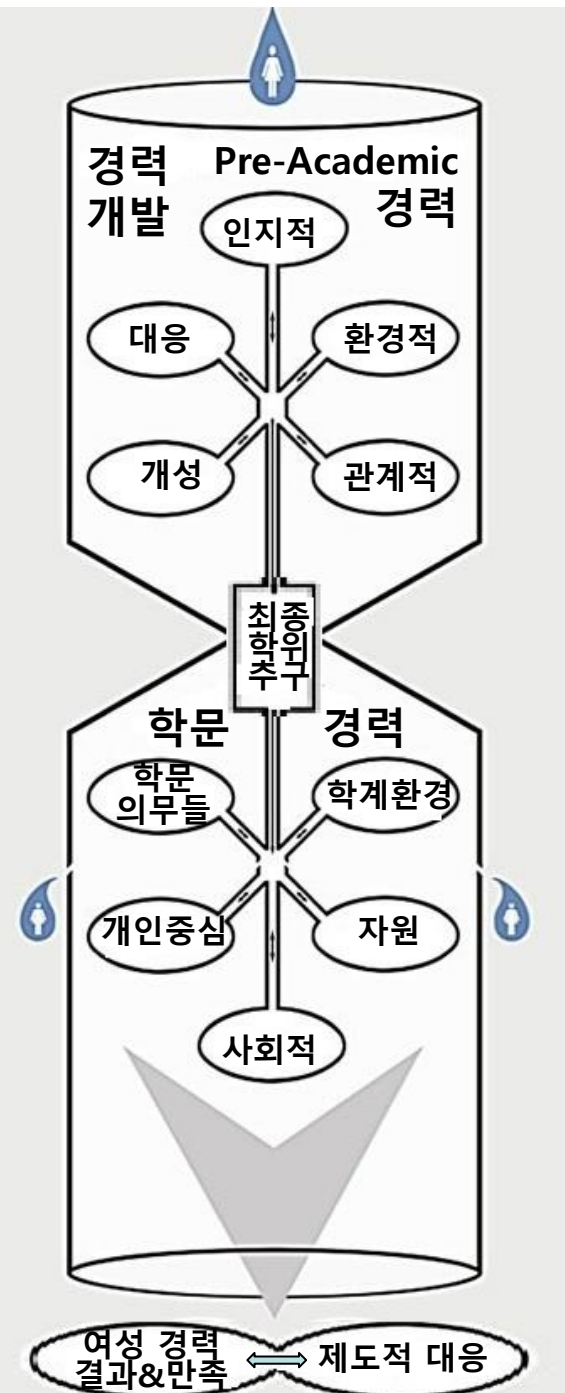
- 연구 다양성 감소
- 주류에 적합한, 주류 시선을 가진, 주류여야 연구자로 살아남을 수 있는 환경은  
어떤 지식만 생산하게 만드나?
- 주변화된 marginalized 이들의 경험과 사유 배제

# 대안

## 학계 환경 Academic environment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가?

- 연구자 역시 노동자이면서 돌봄자carer라는 인식  
-> 여성 뿐 아니라 남성, 그리고 비혼 연구자  
역시 부모 등 가족 돌봄자임
- 부모 대학원생, 박사후연구원, 교수 등 단계별 가족친화정책 도입
- UC California 대학구성원 연구와 가족친화정책의 시사점들(Masson, Wolfinger & Goulden "아이는 얼마나 중요한가 Do Babies Matters?")
- 연구자의 삶, 노동 환경의 재고

Gasser, C. E., & Shaffer, K. S. (2014).  
"Career development of women in academia: Traversing the leaky pipeline"  
The Professional Counselor, 4(4), 332-352.





**감사합니다**